

깨끗한 현장 !, 정리된 현장 ! 이것이 안전관리의 기본

삼성중공업(주)건설부문
목동삼성쉐르빌 신축공사현장



김기신소장

목동 신시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제 모습을 드러내며, 부근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다. 그 중심에는 뛰어난 조망권, 생활의 편리함과 더불어 삶의 멋과 향기를 더하는 공간, 남다른 안전과 품격을 위한 시설, 공간의 변화를 누리는 맞춤설계의 목동쉐르빌이 있다.

‘깨끗한 현장, 정리된 현장’을 안전슬로건으로 정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이는

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실시한 ‘민간 건축공사장 관리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상 등 다양한 수상에 빛나는 안전관리 모범 사업장이다.

깨끗한 현장 · 정리된 현장

2003년 3월의 준공을 목표로 마감공사가 한창인 김기신 소장을 만났다. “저는 해외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사우디, 싱가포르 등 16년 가량을 다니다 보니 건설현



곧 안전한 일터’라는 기본이념으로 무재해, 고품질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 삼성중공업(주)건설부문의 목동 삼성 쉐르빌 신축공사 현장(소장 김기신)을 찾았다.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운동 전국 모범사업장 경진대회’에서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최근 서울에서 주관한 월드컵을 맞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까지

장이 꼭 지켜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재 및 주변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며 김소장은 안전에 대한 평소 생각으로 ‘깨끗한 현장, 정리된 현장’을 강조한다. 일부에서는 가정집도 아닌데 적당히 하자는 불평도 있었지만 정리정돈이 안전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이

해시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깨끗이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각 협력업체에서 자기들이 작업한 것은 스스로 깨끗이 정리 정돈하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또한 현장내



부뿐 아니라 외부 유타리에 올림픽홍보 관련 그림과 자연 친화적인 그림들을 부착함으로써 도시를 미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이런 활동들이 오늘의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시설은 잘 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은 아직 미약하다고 하면서, 개선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신규채용자와 TeaTime을 매일 아침 실시한 것이 어느새 6년째가 되고 있다고 한다. 전국의 현장생활을 30여년 했다는 근로자도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주는 김소장의 차 한잔에 감격해 한다. TeaTime을 통해 신규근로자와 자연스런 분위기를 조성하며 품질과 안전의 중요성을 당부한다. 그래서 현장소장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현장내 작업분위기를 좋게 하고 있다면서 이 방법이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고 전한다.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찾다가 안전계몽노래를 생각해 냈다고 한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와 같이 근로자들의 귀에 익은 경쾌한 노래를 개



사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아침 출근시, 중식시, 퇴근시 현장에 들어준다고 한다. 근로자 공모를 통해 당첨자 시상을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참여를 증가시켜 안전의식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현장에서 공사담당기사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담당구역내의 안전시설이나 근로자의 작업여건 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담당기사이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또는 바로 안전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려줘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전 직원을 안전요원화하고 있었다.

미리 길목을 지키는 안전

목동 웨르빌 현장 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오세일 과장에게 건설안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제조업 형태가 일관된 공정을 유지하는 정적인 작업이라면

건설업은 동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면서, 건설현장은 작업상황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위험요인도 수시로 변동되므로 공사팀과 연계하여 '미리 길목을 지키는 안전'이 재해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체의 강도

초일류 현장 탐방




울이 낮는데 비해, 건설업체는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사고와 건설장비 등 관련으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 계획에 의한 길목을 지키는 안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곳 목동 셰르빌 만의 독특한 안전활동으로 Tea Time 운영과 더불어 안전계몽노래를 뽑는다.

그리고 아침 조회시 안전모를 쓰고 아침체조 함으로써 안전모의 턱끈 착용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고, 공중별 위험포인트를 지적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위험예지 및 현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리프트카 앞복장점검을 실시하여 3대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미착용자는 탑승금지를 시킴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Pad 팀을 각 동별로 배치하여 주요 작업시 순회점검을 통한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구 사전검사, 감전재해예방, 인화물용 리프트카 등의 외부기관 정밀안전진단실시를 통해서 현장의 안전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었다.



근로자를 나의 가족, 형제처럼 웃음으로 대하자.

점심식사도 직원식당이 아닌 근로자식당에서 하면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김기신 소장에게 근로자들에게 당부 말씀을 들어보았다. 건설현장 특성상 새벽 일찍부터 서둘러서 출근하는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가정의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에게도 근로자를 나의 가족, 형제처럼 웃음으로 안전을 독려하고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하라고 지시한다고 한다. 이런 모습에서 인간존중을 제일로 하는 안전관리의 기본이 떠오르며 역시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는 생각이 들며, 지속적인 안전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생산으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일보시켜 주길 바란다. 

(취재 : 오영수, 촬영 : 최종덕)